

공공도서관 테마 컬렉션 효과에 대한 이용자 인식 연구*

Study on Users' Percep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me Collections in Public Libraries

백 지 원 (Ji-Won Baek)**

표 순 희 (Soon Hee Pyo)***

목 차

- | | |
|------------------|------------|
| 1. 서 론 | 4. 종합 및 논의 |
| 2. 테마 컬렉션 효과와 측정 | 5. 결 론 |
| 3. 분석 결과 | |

초 록

본 연구는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테마 컬렉션 서비스의 효과를 이용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테마 컬렉션의 효과 요소들을 서비스 이용, 사서, 도서관 차원에서 도출하였고, 테마 컬렉션 서비스를 주요한 도서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A공공도서관 이용자 294명을 대상으로 효과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테마 컬렉션을 알고 있는 이용자들의 장서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생각지 못한 새로운 도서의 이용에 대한 만족에 높은 효과 인식을 보였다. 또한, 테마 컬렉션 효과 인식도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인식은 오래전부터 도서관을 이용해왔던 이용자, 자주 이용하는 핵심 이용자들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브라우저를 많이 하는 이용자들일수록 사서의 역량에 대한 효과 인식도가 높았다. 이러한 테마 컬렉션에 대한 이용자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테마 컬렉션의 효과와 의의를 반영하여 장서관리, 장서의 활용 및 정보서비스 제공, 이용자 중심의 분류, 도서관 및 사서에 대한 인식 개선의 관점에서 테마 컬렉션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theme collection service in public library from the user's perspective. To this end, based on prior research, the effect elements of the theme collection were derived from the service use, librarian, and library level.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294 users of A public library. The collection satisfaction of users who know the theme collection was higher than those who did not, and showed high recognition for the satisfaction with the use of new and unexpected book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positive recognition tended to be high among users who have been using the library for a long time and frequently use the library service. Based on the users' perception and evaluation of the theme collection,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theme collection service was suggested in terms of collection development, collection use and information service, user-centered classification, and awareness improvement of libraries and librarians.

키워드: 테마 컬렉션, 컬렉션, 북큐레이션, 이용자 인식, 효과, 성과 측정, 공공도서관
Theme Collection, Collection, Book Curation, User Perception, Effectiveness,
Performance Measurement, Public Library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8021916).

** 송의여자대학교 문헌정보과 조교수(jwb@sewc.ac.kr / ISNI 0000 0004 7523 4426) (제1저자)

*** 성균관대학교 정보관리연구소 연구원(shpyo88@hanmail.net / ISNI 0000 0004 6072 9645)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0년 7월 23일 최초심사일자: 2020년 8월 5일 게재확정일자: 2020년 8월 20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3): 115-139, 2020. <http://dx.doi.org/10.4275/KSLIS.2020.54.3.115>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테마 컬렉션은 도서관의 많은 정보자원 중 특정한 테마를 중심으로 자원을 선별, 재분류, 재배치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거나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백지원 2018). 공공도서관 테마 컬렉션은 다양한 의도로 별치자료를 두거나 전시를 하는 등 기존에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던 서비스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며, 선정된 테마를 중심으로 기존의 질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자원이 모여 서비스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근래 도서관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북큐레이션’은 사서가 특정 이용자 집단에 유의할 것으로 판단되는 주제에 해당하는 도서를 선정하고 그 도서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서관의 특정 위치 혹은 장소에 전시하는 일련의 활동(김영석, 박연식, 이용주 2018)이다. 테마 컬렉션과 북큐레이션은 그 의도와 드러나는 모습이 유사하지만, 구축에서 서비스에 이르는 과정 중 어느 단계를 어떠한 관점에서 지칭하는지에 따라 달리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테마 컬렉션은 북큐레이션 활동에 기반하여 만들어지는 결과물 혹은 서비스로 볼 수 있다. 도서관에서는 테마 컬렉션을 북큐레이션 작업을 통해 ‘책과 사람을 이어주는 대화’(하바 요시타카 2015) 또는 ‘소리 없는 스토리텔링’(박영숙 2014)이라 일컬으며, 축적된 도서관 자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공공도서관은 테마 컬렉션

을 전시 혹은 별치와 같은 행사성 서비스가 아닌,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체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편적 공공도서관 서비스로의 정착을 위해 실무자들은 테마 컬렉션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분석과 테마 컬렉션이 도서관 자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컬렉션의 속성 혹은 분류적 특성이 갖는 의미에 대한 논의(Ranasinghe and Chung 2019; 백지원 2018)나 구축 및 운영과 같이 서비스 자체에 대한 연구(Braun 2017; 표순희, 백지원 2019)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장서개발, 서비스와 이용의 확대, 이용자 중심의 분류 등 다양한 업무 차원에서 테마 컬렉션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테마 컬렉션과 관련된 이용자의 인식 및 태도, 영향력, 효과와 같은 서비스의 결과에 관한 연구들은 아직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공공도서관 테마 컬렉션에 대한 이용자 관점에서의 영향력이나 효과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실질적 혜택으로 투입 및 산출과 같은 양적 성과를 넘어 이용자가 체감하는 정성적인 성과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인식 및 태도, 영향력, 효과와 같은 연구는 테마 컬렉션이 공공도서관의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 잡고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테마 컬렉션 서비스의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가에 비치하는 별치나 전시 자료에 대한 도서의 이용량 증가를 이용통계를 통해 검증한 연구가 있다(Larkin-Lieffers 2013; Camacho, Spackman and Cluff 2014; Tingle and Tovstiadi 2016). 또한, Braun(2017)은 전시를 계기로 이용

자들이 새로운 정보와 우연히 만나게 되고, 이를 통해 이용의 확대가 일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이용자 피드백을 통해 보고하였다. Fouracre (2015)는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전시에 대한 이용량 측정과 평가가 이용자 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테마 컬렉션의 효과나 영향력은 이러한 이용량 증가라는 단편적인 결과로 판단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서관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다층적인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강미혜(1996)는 대학도서관에서 전시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해 전시 서비스가 단순히 이용량의 증가뿐 아니라 이용자 교육, 장서관리, 홍보의 효과 및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정유라와 이지연(2017)은 테마 전시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이용 행태 변화를 연구하는 등 테마 전시의 양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이용자 측면에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표순희와 백지원(2019)은 테마 컬렉션 서비스를 추진하는 관장과 담당 사서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테마 컬렉션의 구축과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테마 컬렉션의 효과가 이용자, 사서, 도서관 및 사회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심층 면담을 통해 나타난 효과는 체계적인 측정과 검증이 후속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들의 주관적인 견해로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는다. 심층 면담 과정에서 테마 컬렉션 서비스의 평가 및 성과 분석의 필요성이 테마 컬렉션 담당자들의 직접적인 언급으로 빈번하게 드러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며, 이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실질적인 근거로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테마 컬렉션 서비스의 효과를 이용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테마 컬렉션에 대한 이용자 평가는 아래와 같은 세부 연구 질문을 통해 수행되었다.

첫째, 테마 컬렉션 장서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장서 만족도보다 높은가?

둘째, 이용자 및 이용 특성에 따른 테마 컬렉션의 효과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만족도와 효과 인식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이와 같이 분석된 테마 컬렉션에 대한 이용자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테마 컬렉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테마 컬렉션의 효과와 의의를 반영하여 테마 컬렉션 서비스가 도서관 업무와 서비스의 개발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1.2 연구 방법

테마 컬렉션 서비스의 효과를 이용자 측면에서 확인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이용자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테마 컬렉션의 효과에 대한 개념 정의와 효과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효과의 내용을 유사한 속성별로 범주화하였고, 테마 컬렉션으로 인한 효과가 어떠한 속성을 갖는지 범주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대상을 구체화하였다.

둘째, 검토한 선행연구에서 테마 컬렉션 효과 요소를 추출하여 효과 인식의 측정 항목으

로 개발하였다. 설문 문항에서 테마 컬렉션의 효과 항목은 주로 정유라와 이지연(2017), 표순희와 백지원(2019)의 연구를 기반으로 했으며, 분석을 통해 나타난 테마 컬렉션의 속성별로 효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였다. 특히, 사서가 인식하고 있는 테마 컬렉션의 효과를 이용자가 이해하고 응답하기 용이하도록 설문 문항을 설계하였다.

셋째, 테마 컬렉션 효과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 조사를 위한 표본은 2019년 현재 테마 컬렉션 서비스를 5년 이상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사서와 이용자가 모두 테마 컬렉션의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된 A공공도서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A공공도서관의 테마 컬렉션 장서는 일반 장서와 별도의 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별치되어 이용자들의 주목성과 접근성이 높은 환경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되는 테마 컬렉션 효과 인식의 측정에 용이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넷째, 수집된 데이터는 SPS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기술통계와 이용자 특성과 이용 특성을 독립변수로, 테마 컬렉션 효과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변수의

특성에 따라 T검증, ANOVA,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설문 문항으로 개발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테마 컬렉션 효과 변수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동일한 효과 요인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설문 항목을 확인 및 재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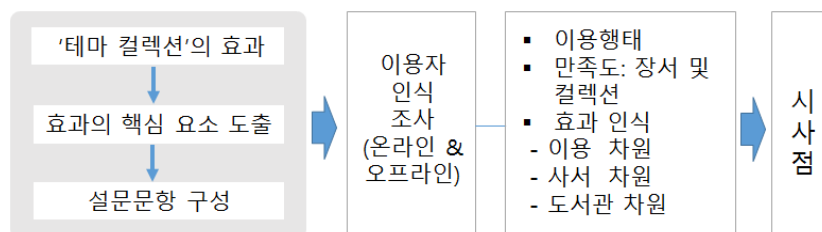
다섯째,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컬렉션의 장서개발, 장서의 활용 및 정보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분류,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인식 개선 등과 같은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이를 도서관 각 분야의 업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과 내용을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2. 테마 컬렉션 효과와 측정

2.1 테마 컬렉션 효과의 내용

본 연구에서 테마 컬렉션의 효과는 이 서비스로 인해 유발된 긍정적인 변화와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때의 변화는 서비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행동 및 사고의 변화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때 서비스의 이해관계자



<그림 1> 연구의 과정과 내용

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서, 도서관, 사회와 같이 광범위하다.

테마 컬렉션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강미혜(1996)는 대학도서관에서 전시의 효과를 Caswell(1985), Kemp(1985), Bowen과 Robert(1993)가 제시한 이용자의 교육적 효과, 장서 이용률 증가, 도서관 홍보, 장서개발, 학술 가치적 효과로 구분하고 이를 대학도서관의 사서와 이용자가 어느 정도로 인식하는가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는 전시 서비스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용자 교육, 장서개발, 홍보, 수서정책 등과 같은 도서관의 서비스 영역을 제시하여 향후 각 영역에서 구체적인 효과 요소를 도출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정유라와 이지연(2017)은 테마 전시 이용이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행태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서비스 이용의 증가, 이용자의 이용행태, 사서, 도서관, 테마 전시에 대한 평가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LibQual+와 같은 도서관의 평가지표에서 사서의 인식 요소를 활용하였고 이용자 면담으로 이루어진 사전 조사를 통해 테마 전시에 대한 평가 요소를 도출하였다.

표순희와 백지원(2019)은 테마 컬렉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공공도서관의 관장과 사서 총 12명을 대상으로 테마 컬렉션의 구축과 운영 전반에 걸친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테마 컬렉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사서가 기대하는 효과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인지한 테마 컬렉션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심층 면담이라는 연구 방법을 통해 정성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테마 컬렉션 효과에 대한 풍부한 기술이 이루어졌다.

〈표 1〉은 이상에서 검토한 선행 연구의 효과 내용을 정리하고 유사한 속성으로 범주화한 것이며, 본 연구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테마 컬렉션의 효과 인식을 위한 측정 요소를 개발하였다.

테마 컬렉션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효과는 이용의 증가이다. 이용 증가는 '이용자'의 증가, '이용 자료'의 증가, '이용 시간'의 증가와 같이 증가 주체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또한, 사서 면담을 통해 도출된 이용의 증가를 보면 '다양한', '새로운', '처음 대출되는', '빠른' 대출과 같이 증가의 원인이 기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테마 컬렉션 서비스가 유발할 수 있는 효과의 특성을 이용자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새로운'과 같은 증가의 원인을 기준으로 한 효과 인식을 측정 요소로 삼았다.

이용자 영역에서는 이용자의 요구 반영, 상호작용 유발, 이용자 사고 및 태도의 변화, 이용행태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들 효과는 정성적 특성을 갖는다. 이용자 영역에서는 '요구의 수용', '상호작용', '사고의 변화'를 효과 인식의 기본 내용으로 하였다. 또한, 테마 컬렉션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운영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서들의 면담을 통해 수집한 테마 컬렉션의 효과는 이용자 측면에서의 효과 뿐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서들이 스스로 인지하는 효과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사서들이 인지하는 효과는 '존중과 인정', '역량강화', '만족도 상승과 동기 부여'와 같은 내적인 측면의 것이다.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 구성원이 인지하는 이러

〈표 1〉 테마 컬렉션 효과의 내용

범주	표순희, 백지원(2019)	정유라, 이지연(2017)	강미혜(1996)
서비스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량 증가 - 다양한 도서 이용 증가 - 생각지 못한 도서의 이용 증가 - 처음 대출되는 도서 증가 - 컬렉션 도서의 빠른 대출 •이용자 증가 - 새로운 이용자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 시간 증가 •이용량 증가 •다양한 도서이용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 자료 이용 증가 - 독서 욕구 증가 - 자료 이용 증가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요구 응답 - 장서개발로 연계 - 특정 분야 도서의 인지 - 장서와 이용자요구 연계 - 빠른 이용자 요구 파악 •상호작용 증가 - 이용자와의 신뢰 증진 - 이용자와의 소통 증가 - 수월한 소통 - 참고 질의 증가 •이용자의 시각 변화 - 이용자의 인식 변화 - 이용자 자기표현 증가 •이용자 독서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행태의 변화 - 사서와의 친밀도 - 도서관 활동 참여 - 전시 주제 관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교육의 효과 - 도서관 이용방법 인식 향상 - 교과 수업 및 교양 교육의 역할 가능성 확대 - 자료이용 태도 개선 - 교육프로그램 효과 •장서개발 효과 - 희망도서 신청과 요구 반영 증가
테마 컬렉션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테마 전시 평가 - 도서관 이용에 도움 - 정보 전달 역할 - 서비스 만족도 - 테마 전시의 유용성 - 도서관 분위기에 영향 	-
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식 향상 및 역할 인정 •존중과 배려 증가 •역량 강화: 문제해결 능력, 문학적 소양, 장서 장악력 향상 •직무 만족도 향상 및 학습 동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서의 정보전달 역할 •사서의 자료구성 역할 •사서의 전문성 •사서의 성실성 •사서의 친밀성 •도움 요청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술적 가치로서 효과 - 사서의 학술적 활동 인정 가능성 증가 - 학술논문 준비에 버금가는 사서의 역량 인정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 홍보 효과 •도서관 관심도 증가 •효율적 조직 관리 •대의협력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제공 도서관 •소통 가능 도서관 •도서관 자료의 다양성 •도서관 활동의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 홍보 효과 - 이미지 향상 - 홍보 활동 증가 - 홍보 방법의 확장 •장서개발 효과 - 장서평가 및 장서 범위 확대 - 수서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의제설정 역할 •사회적 요구 응답 	-	-

한 효과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 주체의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서비스 추진에 큰 동기부여의 효과를 유발한다. 사서 영역에서 효과 인식의 측정 요소는 사서들이 표현한 '장서 장악', '존중과 배려', '역할 인정'과 같은 효과를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도서관 측면에서의 효과 인식은 '홍보', '이미지 향상', '도서관의 기능적 유용성'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 영역에서의 효과 인식은 도서관의 가치 측면에서 요소를 개발하였다.

2.2 테마 컬렉션의 효과 인식 측정

2.2.1 설문 설계와 분석

설문 문항은 도서관 이용 행태, 도서관 만족도, 테마 컬렉션 이용 행태, 테마 컬렉션 만족도, 테마 컬렉션 효과에 대한 인식의 영역으로 <표 2>와 같이 구성하였다. 도서관에 대한 충성도, 이용자의 자료검색 방법, 이용하는 주제 분야와 같은 이용 특성과 효과 인식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 유용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표 2> 설문 항목 및 내용

설문 항목		항목 내용
도서관 이용 행태		이용 빈도, 이용 서비스, 대출건수, A도서관 처음 이용 시기, 이용 시간대, 브라우징 비율, 주제분야별 이용 비율, 도서 대출권수, 도서관 활동 참여
컬렉션 이용 행태		인지 여부, 이용(대출) 여부, 대출량
도서관 장서 및 컬렉션 장서 만족도		최신 도서, 다양한 분야의 도서, 새로운 도서, 전반적 장서 만족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이용	이용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분야의 도서 증가 • 우연한 정보의 발견과 이용 • 다양한 형태 정보 이용
	요구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과 밀접한 테마 • 궁금한 사항에 해당 제공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컬렉션에 책을 추천함 • 테마 제안을 원함 • 더 많은 활동 참여
	사고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 이용 • 다양한 관점으로 도서를 봄
	테마 컬렉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거운 테마 주제 • 다양한 테마 필요
사서와 도서관	사서의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을 잘 파악 • 빠른 정보 안내 • 대화가 많아짐 • 사서에게 먼저 질문 • 사서로 인해 생각과 질문이 바뀜
	도서관의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자주 이용 • 도서관을 더 가깝게 느낌 • 가치를 높게 평가

테마 컬렉션 효과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측정 문항은 <표 1>에서 파악한 서비스 이용, 이용자, 테마 컬렉션, 사서, 도서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개발하였다. 서비스 이용, 이용자, 테마 컬렉션을 '이용' 차원으로 묶어 '이용의 확대', '요구 충족', '상호작용', '사고의 변화', '테마 컬렉션 평가'라는 영역으로 구체화하였다. 사서와 도서관을 하나로 묶어 '사서와 도서관' 차원으로 두고, 이를 '사서의 역량', '도서관의 가치' 영역으로 나누어 항목을 개발하였다. 각 영역의 측정 항목은 이용자의 시각에서 인지하고 응답할 수 있는 서술식 문장으로 전환하여 구성하였으며, 만족도와 효과 인식 항목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테마 컬렉션 효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의 특성, 이용 특성에 따른 만족도와 효과 인식을 분석하였다. SPSS를 이용해서 기술통계를 수행하였으며 집단간 차이 분석을 위해 T검정 및 ANOVA를 수행하였다.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수치는 고딕의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연속변수로 수집된 도서 대출량 및 브라우징 비율과 만족도 및 효과 인식과의 관련성, 만족도와 인식간의 관련성은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영역별 효과 인식 항목의 속성을 파악하여 설계 시 명명한 효과가 적절히 적용되었는가를 확인하고 효과 인식 측정 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2.2 설문 조사

설문 조사는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행태를

고려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서베이 몽키를 통해 2019년 4월 16일부터 약 10일간 진행하였다. 설문 링크를 도서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각 열람 테이블에도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 중임을 알리는 공지를 부착하였다.

오프라인 설문 조사는 2019년 4월 26일 ~ 5월 4일의 기간 중 휴무일을 제외하고 총 7일간 진행되었다. 이 기간은 학생들의 방학이나 휴가 기간이 포함되지 않아 특정 이용자의 집중 혹은 부재 현상이 없는 시기이다. 또한,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의 이용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평일 오전, 오후, 주말 오전, 오후 시간대를 적절히 나누어 조사 대상 도서관의 일상적인 이용자가 응답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연구의 의도와 목적을 충분히 숙지한 연구 보조원이 직접 조사를 수행하였고 연구원이 부재한 야간 시간에는 도서관 근무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온오프라인 설문 참여시 답례품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설문응답을 유도하였다. 설문 결과는 온라인으로 129건, 오프라인으로 182건, 총 311건의 응답을 받았다. 이 중 응답불성실로 판정된 17건을 제외한 294건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 분석 결과

3.1 응답자 특성 및 이용 행태

응답자의 성별을 보면 여성 79.04%, 남성 20.96%로 여성 응답자가 4배 가까이 많았다. 연령은 30대가 22.45%, 40대가 49.66%로, 30~40

대가 전체 응답자의 73%에 달했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65.65%, 대학원 졸업이 21.77%의 순으로 많았다. 직업은 주부가 36.50%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사무직이 14.70%로 그 뒤를 이었다(〈표 3〉 참조).

도서관 이용 빈도는 주 1회가 약 26.6%로 가장 높았고 월 2~3회가 23.6%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월 1회 이용은 16.2%였으므로, 월 1~4회 이용이 총 66% 이상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자 중 타 도서관을 동시에 이용하는 응답자는 68% 이상이었다.

도서관을 처음 이용한 시점은 6년 이상 전부터가 35.5%로 가장 많았으며, 1~5년 사이가 7.6%~15.2%로 다양하게 응답되었다. 도서관 이용 시간대는 평일 오전과 오후, 토요일 오후가 거의 유사하게 높았다. 도서관에서 하는 활동은 대출반납이 37%로 가장 높았다. 자료 탐색을 위해서는 특별한 목적 없이 서가를 둘러보는, 즉 검색이 아닌 브라우징을 하는 비율이 54.26%로 나타나, 검색과 브라우징을 통해 이용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내용	응답수	비율(%)
성별	남자	61	20.96
	여자	230	79.04
	합계	291	100
연령	10대	10	3.40
	20대	28	9.52
	30대	66	22.45
	40대	146	49.66
	50대	33	11.22
	60대 이상	11	3.74
	합계	294	1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2	0.68
	중학교 졸업	9	3.06
	고등학교 졸업	26	8.84
	대학교 졸업	193	65.65
	대학원 졸업	64	21.77
	합계	294	100
직업	학생/취업준비생	28	9.60
	주부	107	36.50
	일반사무직	43	14.70
	자영업/생산직	44	15.00
	공무원/전문직	35	11.90
	시민단체·마을활동가	7	2.40
	무직/은퇴자	15	5.10
	기타	14	4.80
	합계	293	100

주로 이용하는 주제 분야는 복수응답을 받은 결과 문학, 사회과학, 예술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도 문학이 약 24%의 비중을 보였다. 주로 이용하는 주제분야에 순위를 매길 경우, 1순위는 문학이 37.4%, 2순위는 사회과학이 16.2%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주제분야를 ‘잘모른다’라고 답한 응답도 10.1%로 나타나, 이용자들이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제분류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자료를 이용하는 비율도 의미 있게 파악되었다. 응답자의 34.5%가 도서관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프로그램 참여(11.3%)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낭독회 회원(7.8%), 자원봉사(8.2%), 독서회 회원(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는 월 평균 7.68권의 도서를 대출하며, 전체 대출 대비 테마 컬렉션 도서의 대출 비율은 30.11%로 이는 월평균 약 2.5권에 해당한다.

3.2 장서 만족도 및 컬렉션 장서 만족도

A도서관 전체 장서의 만족도를 보면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 장서 만족도는 미리 알지 못한 도서를 발견하여 이용하는 ‘생각지 못한 도서의 이용’, ‘전반적 장서 만족’, ‘다양한 도서 이용’에 대한 만족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전체 장서 만족도

만족 영역	전체 응답자 (n=291)	표준편차
최신 도서 이용	3.27	1.063
다양한 도서 이용	3.9	0.987
생각지 못한 도서의 이용	4.15	1.036
전반적 장서 만족	4.13	0.91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통계적인 차이는 없으

나 도서관 장서에 대한 ‘생각지 못한 도서의 이용’에서 여성(4.19)이 남성(4.05)보다 높은 반면, ‘전반적 장서 만족’에서 남성(4.18)이 여성(4.12)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 장서 만족’이 연령별로는 10대(4.6)와 20대(4.46)에서, 학력별로는 초등 졸업(5)의 경우가, 직업별로는 시민단체·마을활동가(이하 활동가)(4.71)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 이용행태와 관련된 연구에서 도서관의 이용유무에 따라 ‘이용자’와 ‘비이용자’로 구분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의 이용행태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 및 효과 인식 결과를 보기위해 아래와 같이 주 단위, 월 단위, 연단위의 도서관 이용빈도를 기준으로 이용자를 세분하여 분석하였다(<표 5> 참조).

<표 5> 이용빈도에 따른 이용자 구분

이용자 구분	특성
핵심 이용자	도서관을 주 1회 이상 빈번하게 이용하는 이용자
일상 이용자	도서관을 월 1회~3회 이내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일반 이용자	비이용자는 아니지만 1년에 가끔 이용하는 이용자

핵심 이용자 집단의 ‘다양한 도서 이용’ 만족(F=4.012, p=0.19 <.05)과 ‘생각지 못한 도서의 이용’(F=7.540, p=0.001 <.01)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일상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의 만족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6> 참조).

A도서관 이용 시작 시점에 따른 만족도는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대체로 오래전부터 이용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6〉 이용빈도에 따른 전체 장서 만족도

장서 만족	이용자 구분	핵심 이용자 (n=123)	일상 이용자 (n=118)	일반 이용자 (n=52)
	최신 도서 이용	3.44	3.17	3.08
	다양한 도서 이용	4.07	3.85	3.62
	생각지 못한 도서의 이용	4.4	4.07	3.77
	전반적 장서 만족	4.25	4.08	3.9

응답자가 주로 이용하는 주제 분야에 따라 A도서관의 장서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자들 차원에서는 주로 이용하는 주제 분야에 따른 장서 만족도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컬렉션을 인지하고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들은 주로 이용하는 주제 분야에 따라 A도서관의 장서 만족도 항목 중 '생각지 못한 도서의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다르게 ($F=2.632, p=0.012 < .05$) 나타났다. 다만, 주로 이용하는 주제분야에 따른 집단간 순위는 통계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있어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응답자의 53.5%는 이 도서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테마 컬렉션을 알고 있었고,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에서 76.1%는 테마 컬렉션 도서를 대출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테마 컬렉션을 알고 있는 이용자의 전체 장서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수준 .01에서 인지하고 있지 않

은 이용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7〉 참조). 테마 컬렉션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가 '생각지 못한 도서의 이용(4.45)'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이는 테마 컬렉션을 인지하지 못한 응답자의 만족도(3.91) 보다 높았다($t=4.449, p=0.000 < 0.01$). '전반적 장서 만족'도 테마 컬렉션을 인지한 응답자(4.38)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3.92)에 비해 높게($t=4.435, p=0.000 < 0.01$) 나타났다.

컬렉션을 인지하고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들의 컬렉션 장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생각지 못한 컬렉션 도서의 이용(4.45)'이 가장 높게 타났고 '전반적 컬렉션 장서 만족(4.27)'도 높게 나타났다. 테마 컬렉션 장서 만족도(〈표 8〉 참조)를 〈표 4〉의 전체 장서 만족도와 비교하여 보면 컬렉션 장서에 대한 '생각지 못한 컬렉션 도서의 이용'의 만족도 표준편차 값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용자들은 컬

〈표 7〉 테마 컬렉션 인지 여부에 따른 전체 장서 만족도

장서 만족	컬렉션 인지 여부	컬렉션 알지 못함 (n=159)	컬렉션 알고 있음 (n=132)
	최신 도서 이용	3.12	3.45
	다양한 도서 이용	3.76	4.07
	생각지 못한 도서의 이용	3.91	4.45
	전반적 장서 만족	3.92	4.38

〈표 8〉 테마 컬렉션 장서 만족도

만족 영역	컬렉션 이용해 봄 (n=105)	표준편차
최신 컬렉션 도서 이용	3.41	1.103
다양한 컬렉션 도서 이용	3.97	0.853
생각지 못한 컬렉션 도서의 이용	4.45	0.679
전반적 컬렉션 장서 만족	4.27	0.88

〈표 9〉 이용빈도에 따른 테마 컬렉션 장서 만족도

컬렉션 장서 만족	이용자 구분		
	핵심 이용자 (n=63)	일상 이용자 (n=34)	일반 이용자 (n=7)
최신 컬렉션 도서 이용	3.56	3.12	3.57
다양한 컬렉션 도서 이용	4.1	3.74	4
생각지 못한 컬렉션 도서의 이용	4.53	4.32	4.29
전반적 컬렉션 장서 만족	4.48	3.94	3.86

렉션 장서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전체 장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치된 만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마 컬렉션 장서의 만족도에 있어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용행태 중에서는 이용 빈도로 구분한 이용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표 9〉 참조). 핵심 이용자의 '전반적 컬렉션 장서 만족'이 일상 이용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F=5.477, p=0.006 < .01$).

3.3 테마 컬렉션의 효과 인식

3.3.1 테마 컬렉션 효과 인식의 요인

테마 컬렉션 효과 인식 항목은 앞선 〈표 2〉와 같이 이용 차원에서는 '이용의 확대', '요구충족', '상호작용', '사과의 변화', '테마 컬렉션 평가'로 개념화하고, 사서 및 도서관 차원에서는 '사서의 역량과 '도서관의 가치'로 개념화하여 측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테마 컬렉션 효과 인식 항목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실제 분석에 앞서 이와 같은 테마 컬렉션의 효과 인식 항목이 동질의 개념들로 묶였는가를 확인하고자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회전은 직교회전방식(orthogonal factor rotation) 중 하나인 베리맥스(varimax) 회전 방법을 사용하였다.

테마 컬렉션의 효과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0.4 이하인 변수가 없고 KMO(Kaiser-Mayer-Olkin) 값은 .83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카이제곱 1088.056, 유의확률 .000으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분산의 설명력은 68.37%이며 고유값이 1.0이상인 5개의 요인이 〈표 10〉과 같이 추출되었다.

<표 10> 테마 컬렉션 효과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 영역	항목	요인부하량(공통성)	고유값	분산(%)	누적(%)
요인 1 (사서의 역량)	질문을 잘 파악	.860(.803)	7.902	39.510	39.510
	자료를 빠르게 안내	.843(.770)			
	사서로 인해 생각과 질문이 바뀜	.776(.761)			
	대화가 많아짐	.740(.778)			
	사서에게 먼저 질문	.639(.712)			
요인 2 (이용의 확대)	새로운 분야의 독서 증가	.752(.690)	1.935	9.677	49.188
	우연한 정보의 발견과 이용	.729(.660)			
	도서에 대한 다양한 관점	.689(.717)			
	다양한 형태 정보 이용	.655(.604)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 이용	.584(.541)			
요인 3 (도서관의 가치)	도서관이 더 가깝게 느낌	.757(.761)	1.799	8.993	58.180
	더 자주 이용	.747(.697)			
	가치를 높게 평가	.560(.613)			
	궁금한 사항에 해당 제공	.477(.505)			
요인 4 (이용자 참여)	테마 제안을 원함	.790(.720)	1.030	5.148	63.329
	컬렉션 책을 추천함	.751(.646)			
	삶과 밀접한 테마	.608(.730)			
	더 많은 활동 참여	.496(.631)			
요인 5 (테마 평가)	무거운 테마 주제	.811(.779)	1.010	5.049	68.377
	다양한 테마 필요	.658(.557)			
KMO		.836			
Bartlett 구형성 검정치		1088.056			
유의확률		.000			

요인 1은 <표 2>의 '사서의 역량' 영역의 항목들과 동일하게 나타났고 '이용의 확대'와 '사고의 변화' 영역의 항목이 요인 2로 통합되어 추출되었다. 요인 3에는 '도서관의 가치' 영역의 항목과 '요구 충족' 영역 중 '궁금한 사항에 해당 제공' 항목이 포함되었다. 요인 4에는 '상호작용' 영역의 모든 항목과 '요구 충족' 영역 중 '삶과 밀접한 테마' 항목이 포함되었다. '테마 컬렉션 평가' 영역의 두 항목은 그대로 요인 5로 추출되었다.

인식 설계에서 구성한 항목과 대부분 유사하게 구분되었으나 '요구 충족' 영역으로 본 '삶과

밀접한 테마'는 '테마 제안을 원함', '컬렉션에 책을 추천함', '더 많은 활동 참여' 항목이 포함된 '상호작용' 요인으로 나타났고, '궁금한 사항에 해당 제공'은 '도서관의 가치'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요구 충족' 영역을 없애고 '상호작용'에서 추가된 요인을 반영하여 새롭게 묶인 요인의 영역 명칭을 '이용자 참여'로 수정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5개의 요인을 '사서의 역량', '이용의 확대', '도서관의 가치', '이용자 참여', '테마 평가'로 명명하여 이를 효과 인식의 요인 영역으로 삼았다.

3.3.2 이용 차원의 효과 인식

테마 컬렉션의 이용 차원의 효과 인식은 이용의 확대, 이용자 참여, 테마 평가의 효과 인식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테마 컬렉션을 인지하고 이를 직접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들이 밝힌 인식을 보면 <표 11>과 같다.

테마 컬렉션 이용자는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 이용(4.14)', '도서에 대한 다양한 관점(4.13)', '우연한 정보의 발견과 이용(4.12)'에 대하여 4점 이상의 응답을 보여 테마 컬렉션에 대하여 장서의 주제 확장성 및 특정 이슈에 대한 집중성의 효과가 높게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삶과 밀접한 테마(3.87)', '다양한 형태 정보 이용(3.53)' 등에 대한 응답도 3.5점 이상의 응답을 보여 이용자들은 테마 컬렉션에 일상 생활에서 정보 문제 해결, 다양한 자원 활용 기회 제공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현재 구성되어 있는 테마가 너무 무겁고 진중하지 여부를 의미하는 '무거운 테마 주제(2.44)'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보여 테마 컬렉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이용차원의 컬렉션 인식을 보면 성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인식은 <표 12>와 같이 나타났는데 '새로운 분야의 독서 증가(F=2.814, p=0.029 <.05>)'에서 50대 이상, 40대, 10대 응답자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50대 이상 연령대의 효과 인식이 가장 높았다. '컬렉션 책을 추천함(F=2.522, p=0.046 <.05>)', '무거운 테마 주제(F=2.645, p=0.038 <.05>)', '테마 제안을 원함(F=3.112, p=0.019 <.05>)' 항목이 통계적으로 연령별 인식의 차이를 보였으나 구체적인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학력에 따른 테마 컬렉션 이용자의 인식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평균 인식도가 가장 높았다(3.70).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을 보면 '새로운 분야의 독서 증가'에서(F=3.294, p=0.24, p<.05) 고등학교 졸업 응답자(4.50), 대학원 졸업(4.24), 중학교 졸업(3.00) 응답자 순으로 인식도가 높았다(<표 13> 참조).

학력에 따른 테마 컬렉션 이용자의 인식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평균 인식도가 가장 높았다(3.70).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을 보면 '새로운 분야의 독서 증가'에서(F=3.294, p=0.24, p<.05) 고등학교 졸업 응답자(4.50), 대학원 졸업(4.24), 중학교 졸업(3.00) 응답자 순으로 인식도가 높았다(<표 13> 참조).

<표 11> 이용 차원의 테마 컬렉션 효과 인식

인식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이용의 확대	새로운 분야의 독서 증가	104	4.04	0.965
	우연한 정보의 발견과 이용	104	4.12	0.962
	다양한 형태 정보 이용	102	3.53	1.022
	도서에 대한 다양한 관점	103	4.13	0.813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 이용	104	4.14	0.703
이용자 참여	테마 제안을 원함	103	3.1	1.053
	컬렉션 책을 추천함	103	2.56	1.218
	삶과 밀접한 테마	102	3.87	0.992
	더 많은 활동 참여	103	2.75	1.1
테마 평가	무거운 테마 주제	102	2.44	0.918
	다양한 테마 필요	104	3.47	1.114

〈표 12〉 연령에 따른 이용 차원의 테마 컬렉션 효과 인식

인식 항목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¹⁾
			(n=6)	(n=9)	(n=22)	(n=51)	(n=13)
이용의 확대	새로운 분야의 도서 증가		3	4	4.23	4.04	4.46
	우연한 정보의 발견과 이용		3.83	4.22	4.36	4.06	4.23
	다양한 형태 정보 이용		3.2	3.56	3.41	3.63	3.54
	도서에 대한 다양한 관점		4	4.56	4.09	4.1	4.31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 이용		4.33	4.44	4.14	4.14	4.08
이용자 참여	테마 제안을 원함		3.4	3.67	3.27	2.84	3.62
	컬렉션 책을 추천함		2.2	3.56	2.41	2.45	3
	삶과 밀접한 테마		4.4	4.56	3.82	3.8	4.08
	더 많은 활동 참여		3.4	3.22	2.64	2.71	2.69
테마 평가	무거운 테마 주제		2	1.88	2.18	2.67	2.54
	다양한 테마가 필요		2.33	3.44	3.68	3.57	3.23
평균			3.28	3.74	3.48	3.46	3.62

〈표 13〉 학력에 따른 이용 차원의 테마 컬렉션 효과 인식

인식 항목		학력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n=6)	(n=6)	(n=68)	(n=21)
이용의 확대	새로운 분야의 도서 증가		3	4.5	4.04	4.24
	우연한 정보의 발견과 이용		3.83	4.17	4.18	4.14
	다양한 형태 정보 이용		3.2	3.67	3.43	3.95
	도서에 대한 다양한 관점		4	4.5	4.15	4.1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 이용		4.33	4.5	4.09	4.24
이용자 참여	테마 제안을 원함		3.4	3.67	3.01	3.38
	컬렉션 책을 추천함		2.2	3.17	2.54	2.76
	삶과 밀접한 테마		4.4	4	3.9	3.85
	더 많은 활동 참여		3.4	3	2.72	2.81
테마 평가	무거운 테마 주제		2	2	2.51	2.57
	다양한 테마가 필요		2.33	3.5	3.54	3.52
평균			3.28	3.70	3.46	3.60

이용빈도에 따른 집단간의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도서관을 처음 이용한 시기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표 14〉와 같이 ‘컬렉션 책을 추천함’ 항목에서 나타났다. 높은 수준의 인식도는 아니나 2년 전부터 도서관을 이

용한 이용자에게 비해 6년 이상 이용한 이용자가 컬렉션에 추천할 도서가 있는 의향이 2.05와 2.82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F=3.572, p=0.032 <.05).

1) 연령은 60세 이상 응답자가 2명에 불과하였으므로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50대 이상을 하나의 집단으로 조정해서 분석함.

〈표 14〉 이용 시작 시점에 따른 이용 차원의 테마 컬렉션 효과 인식

인식 항목		이용 시작 시점	2년 전 (n=22)	5년 전 (n=32)	6년 이상 전 (n=46)
이용의 확대	새로운 분야의 독서 증가		4	4.28	3.93
	우연한 정보의 발견과 이용		4.23	4.22	4.04
	다양한 형태 정보 이용		3.48	3.47	3.6
	도서에 대한 다양한 관점		4.14	4.09	4.22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 이용		4.14	4.16	4.15
이용자 참여	테마 제안을 원함		3	3.22	3.18
	컬렉션 책을 추천함		2.05	2.75	2.82
	삶과 밀접한 테마		3.95	3.91	3.89
	더 많은 활동 참여		2.55	2.78	2.91
테마 평가	무거운 테마 주제		2.27	2.55	2.49
	다양한 테마가 필요		3.27	3.44	3.59
평균			3.37	3.53	3.53

본 연구에서는 브라우징 비율, 즉 정보탐색 방식과 대출 권수가 테마 컬렉션 효과에 대한 인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연속변수로 측정된 브라우징 비율 및 대출 권수와 5점 척도로 측정된 인식도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용자의 브라우징과 테마 컬렉션의 효과에 대한 인식은 〈표 15〉와 같이 '새로운 분야의 독서 증가'와 '우연한 정보의 발견과 이용', '컬렉션 책을 추천함', '더 많은 활동 참여'의 항목과 유의수준 .05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브라우징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대하지

〈표 15〉 브라우징 비율 및 대출권수와 이용 차원의 효과 인식 간 상관관계

인식 항목		이용 형태	브라우징 비율	대출권수
이용의 확대	새로운 분야의 독서 증가		.169*	.26**
	우연한 정보의 발견과 이용		.19*	.228**
	다양한 형태의 정보 이용		.126	.156
	도서에 대한 다양한 관점		.117	.125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 이용		.075	.066
이용자 참여	테마 제안을 원함		.099	.021
	컬렉션 책을 추천함		.154*	-.105
	삶과 밀접한 테마		.086	.082
	더 많은 활동 참여		.155*	-.002
테마 평가	무거운 테마 주제		-.009	-.133
	다양한 테마가 필요		-.094	.096

* p<.05, ** p<.01

않았던 정보를 발견하고 컬렉션 추천 의사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출권수와 효과 인식도의 관계를 보면 '새로운 분야의 도서 증가', '우연한 정보의 발견과 이용'과 유의수준 .01에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테마 컬렉션에서 새로운 분야의 도서 및 우연한 책의 발견이 대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용자들의 장서 만족도가 이용 차원의 테마 컬렉션 효과 인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파악했다(〈표 16〉 참조). 대부분의 효과 인식 항목과 전체 장서 만족도 항목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최신 도서 이용' 만족도는 이용의 확대 영역에서 '도서에 대한 다양한 관점'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과 상관관계가 없고, 테마 평가 영역에서는 모든 항목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컬렉션 장서 만족도와 효과 인식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4개 항목의 컬렉션 장서 만족도는 '테마 평가' 영역의 '무거운 테마 주제', '다양한

테마가 필요'와 같은 비판적인 항목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영역의 효과 인식 항목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3.3.3 도서관 및 사서 차원의 효과 인식

테마 컬렉션의 도서관 및 사서 차원에서 효과 인식은 '도서관의 가치'와 '사서의 역량'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의 인식을 보면 '질문을 잘 파악(4.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료를 빠르게 안내(4.48)', '도서관의 가치를 높게 평가(4.45)', '도서관이 더 가깝게 느껴짐(4.17)' 순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사서가 이용자의 질문을 잘 파악하는 것,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빠르게 안내하는 것은 그만큼 사서가 도서관 장서와 이용자의 질문에 대한 파악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표순희, 백지원(2019)의 연구에서 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표현된 사서의 '장서 장악력', '장서에 대한 자신감'의 중요성이 이용자의 인식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표 16〉 전체 장서 만족도와 이용 차원의 효과 인식 간 상관관계

인식 항목	장서 만족도	최신 도서 이용	다양한 도서	생각지 못한 도서의 이용	전반적 장서 만족
이용의 확대	새로운 분야의 도서 증가	.106	.295**	.409**	.321**
	우연한 정보의 발견과 이용	.096	.327**	.470**	.372**
	다양한 형태의 정보 이용	.182	.341**	.446**	.293**
	도서에 대한 다양한 관점	.294**	.451**	.489**	.511**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 이용	.119	.349**	.437**	.299**
이용자 참여	테마 제안을 원함	.234*	.263**	.277**	.181
	컬렉션 책을 추천함	.368**	.379**	.222*	.239*
	삶과 밀접한 테마	.328**	.401**	.387**	.416**
	더 많은 활동 참여	.251*	.303**	.288**	.280**
테마 평가	무거운 테마 주제	-.064	-.118	-.133	-.201*
	다양한 테마가 필요	-.028	-.029	.040	-.013

* p<.05, ** p<.01

〈표 17〉 도서관 및 사서 차원의 테마 컬렉션 효과 인식

인식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도서관의 가치	더 자주 이용	103	3.47	0.937
	도서관이 더 가깝게 느껴짐	103	4.17	0.853
	가치를 높게 평가	102	4.45	0.698
	궁금한 내용에 해당 제공	103	3.85	0.89
사서의 역량	질문을 잘 파악	103	4.5	0.791
	자료를 빠르게 안내	103	4.48	0.79
	대화가 많아짐	103	3.94	1.074
	사서에게 먼저 질문	103	3.83	1.061
	사서로 인해 생각과 질문이 바뀜	103	3.67	1.141

도서관 및 사서의 차원에서 테마 컬렉션의 인식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질문을 잘 파악', '자료를 빠르게 안내', '사서로 인해 생각과 질문이 바뀜' 항목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자료를 빠르게 안내' 항목에서 가장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직업별로 보면 활동가의 8개 항목에 대한 인식도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치를 높게 평가' 항목이 가장 많은 직업군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공무원 응답자는 '질문을 잘 파악' 항목이 가장 높았고, 무직/은퇴자는 '대화가 많아짐'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용 시작 시점에 따른 인식도의 차이는 없었으나 도서관 이용 빈도로 구분한 이용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핵심 이용자는 일상 이용자에 비해 '도서관이 더 가깝게 느껴짐($F=3.678$, $p=0.029 < .05$), '자료를 빠르게 안내($F=6.976$, $p=0.001 < 0.01$), '사서로 인해 생각과 질문이 바뀜($F=3.514$, $p=0.034 < 0.05$)'에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핵심 이용자가 일상 이용자에 비해 사서와 도서관에 대해 높은 인식을 나타

냈고, 일상 이용자의 인식은 세 집단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18〉 참조).

브라우징 비율 및 대출권수와 사서 및 도서관 차원의 효과 인식도간의 상관관계는 〈표 19〉와 같다. 브라우징 비율과 '더 자주 이용', '가치를 높게 평가' 항목 이외에 모든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브라우징 비율은 사서의 역량에 해당하는 4개 항목 모두에서 유의수준 .01에서 높은 상관계수 값을 보여 브라우징을 많이 하는 이용자는 사서의 역량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서에 대한 만족도와 도서관 및 사서 차원의 효과 인식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최신 도서 이용' 만족도와 '더 자주 이용', '궁금한 내용에 해당 제공', '가치를 높게 평가' 항목간의 상관관계가 낮고 나머지는 모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표 20〉 참조). 반면, 컬렉션 장서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 인식간의 관계는 이용 차원의 대부분의 영역이 전체 장서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같이 컬렉션 장서의 모든 만족도와 효과 인식 항목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18〉 이용 빈도에 따른 도서관 및 사서 차원의 테마 컬렉션 효과 인식

인식 항목		이용자 구분	핵심 이용자 (n=63)	일상 이용자 (n=31)	일반 이용자 (n=6)
도서관의 가치	더 자주 이용		3.52	3.19	4.17
	도서관이 더 가깝게 느껴짐		4.33	3.84	4.17
	궁금한 내용에 해당 제공		3.97	3.65	4.00
	가치를 높게 평가		4.47	4.45	4.5
사서의 역량	질문을 잘 파악		4.3	3.65	4.5
	자료를 빠르게 안내		4.43	3.48	4.5
	대화가 많아짐		3.92	3.26	4.00
	사서에게 먼저 질문		3.86	3.55	4.17
	사서로 인해 생각과 질문이 바뀜		3.51	2.77	3.5
평균			4.04	3.52	4.19

〈표 19〉 브라우징 비율 및 대출권수와 도서관 및 사서 차원의 효과 인식 간 상관관계

인식 항목		이용 행태	브라우징 비율	대출권수
도서관의 가치	더 자주 이용		.142	.081
	도서관이 더 가깝게 느껴짐		.319**	.213**
	궁금한 내용에 답제공		.159*	.034
	가치를 높게 평가		.117	.189*
사서의 역량	질문을 잘 파악		.261**	.214**
	자료를 빠르게 안내		.245**	.159*
	대화가 많아짐		.26**	.16*
	사서에게 먼저 질문		.251**	.228**
	사서로 인해 생각과 질문이 바뀜		.275**	.077

* p<.05, ** p<.01

〈표 20〉 전체 장서 만족도와 도서관 및 사서 차원의 효과 인식 간 상관관계

인식 항목		장서 만족도	최신 도서 이용	다양한 도서	생각지 못한 도서의 이용	전반적 장서 만족
도서관의 가치	더 자주이용		.160	.221*	.355**	.234*
	도서관이 더 가깝게 느껴짐		.297**	.408**	.485**	.412**
	궁금한 내용에 답제공		.132	.345**	.305**	.339**
	가치를 높게 평가		.196	.418**	.464**	.506**
사서의 역량	질문을 잘 파악		.402**	.337**	.222*	.310**
	자료를 빠르게 안내		.295**	.402**	.355**	.290**
	대화가 많아짐		.376**	.317**	.361**	.309**
	사서에게 먼저 질문		.290**	.388**	.407**	.381**
	사서로 인해 생각과 질문이 바뀜		.405**	.356**	.332**	.322**

4. 종합 및 논의

4.1 결과 종합

이용자의 관점에서 본 테마 컬렉션의 효과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는 6년 이상 도서관을 이용해온 비율이 35.5%로 가장 많았고, 평일과 토요일 오후에 가장 많이 방문하였다. 응답자들이 도서관에서 브라우징 방식으로 자료를 이용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54.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영역별로 보면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분야는 문학류로, 24%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약 10%의 응답자들은 이용하는 자료의 주제 분야를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4.5%가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전체 대출 대비 30% 이상은 컬렉션 도서를 대출하고 있었다.

둘째, 도서관 전체 장서와 컬렉션 장서 만족도 모두 '생각지 못한 도서의 이용' 만족이 가장 높았다. 핵심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일상 이용자들의 만족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컬렉션을 알고 있는 응답자들의 장서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장서에 비해 컬렉션 장서에 대한 '생각지 못한 도서의 이용' 만족도의 표준편차 값이 가장 낮아, 이용자들은 컬렉션 장서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상대적으로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셋째, 이용 차원에서 테마 컬렉션의 효과 인식은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 이용', '도서에 대한 다양한 관점', '우연한 정보의 발견과 이용'

에 대하여 4점 이상의 높은 인식을 보였다. '무거운 테마 주제'와 같이 컬렉션이 미비하거나 불만족스럽다는 의미를 내포한 문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보여 컬렉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긍정적인 인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50대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 응답자가 '새로운 분야의 독서 증가' 항목에서 인식도가 가장 높았고 6년 이상 도서관을 이용해온 이용자는 '컬렉션 책을 추천함'과 같이 컬렉션 구성 참여에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용자의 브라우징은 새로운 분야의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는 것과 컬렉션 책을 추천할 의향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도서관 및 사서 차원에서 효과 인식은 사서가 '질문을 잘 파악'하고 '자료를 빠르게 안내'하며 '도서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항목 순으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 차이는 없으나 20대와 50대, 활동가의 인식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핵심 이용자들은 일상 이용자에 비해 사서들이 자료를 빠르게 안내한다고 생각하고, 사서로 인해 생각과 질문이 바뀌고, 도서관을 더 가깝게 느끼고 있었다. 브라우징 비율과 사서의 역량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01에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브라우징을 많이 하는 이용자들은 사서와의 친밀도, 신뢰도 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전체 장서 만족도와 대부분의 효과 인식 항목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신 도서 이용' 만족과 '이용의 확대', '테마 평가' 영역의 대부분의 항목, '도서관의 가치' 영역의 '더 자주 이용', '가치를 높게 평가' 항목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컬렉션 장서 만족도와 효과 인식간의 관계에서도 4개의 컬렉션 장서 만족도 항목 모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테마 평가' 영역의 '무거운 테마 주제'나 '다양한 테마가 필요'와 같은 비판적인 컬렉션 평가 항목간의 상관관계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테마 컬렉션이 축적된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테마를 중심으로 필요한 자원을 선별하고 재분류, 재배치를 통해 구축되는 서비스인 만큼, 도서의 최신성에 관한 만족도는 효과 인식도와는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2 논의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테마 컬렉션이 도서관 서비스로서 갖는 효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장서개발, 장서의 활용 및 정보서비스 제공, 분류, 도서관 및 사서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첫째, 장서개발의 측면이다. 전시 서비스에 대한 연구(강미혜 1996)에 따르면 전시는 희망도서 신청과 요구 반영의 효과, 장서범위 확대 효과, 수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등이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자들은 도서관에서 문학에 이어 사회과학 분야의 장서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공공도서관에서 운영되는 현행 테마 컬렉션 역시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한 주제 또는 사회적 이슈를 테마로 하여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백지원 2018), 이는 도서관이 문학과 사회적 테마를 결합함으로써 장서개발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이용자의 문학에 대한 수요와 생활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테마를 기

반으로 장서개발의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테마 컬렉션 서비스가 기존의 축적된 자원의 활용에서 더 나아가 이용자의 잠재적 요구를 선제적으로 수용하고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6년 이상 도서관을 이용한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이용한 이용자에 비해 컬렉션 책을 추천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이 충성도가 높은 이용자를 도서관의 장서개발 및 테마 컬렉션 구축에 참여 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수혜자 역할에 머물렀던 이용자를 도서관의 운영주체로 참여하게 하여 이용자 역할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장서의 활용 및 정보서비스 제공의 측면이다. 일반적인 장서 환경에서는 이용자들이 도서관이 제공하는 한 가지 측면의 주제 접근만 가능하거나, 발견한 개별 저작 단위로 자원을 이용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 이용자들이 테마 컬렉션에 대해 '도서에 대한 다양한 관점', '우연한 정보의 발견과 이용', '새로운 분야 독서 증가' 등에 대하여 높은 인식을 보인 것과 같이 테마 컬렉션을 통해 주제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거나 전환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테마 컬렉션의 주제 확장성, 발견성의 증대 및 특정 이슈에 대한 주목 효과는 도서관이 소장한 자원을 이용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처음의 정보 요구를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주제 분야나 정보로 확장시킬 수 있게 해준다. 도서관측에서는 웹자원 등 여러 형태의 정보를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보다 풍부한 정

보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서의 전체적인 활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분류의 측면이다. 응답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제 분야는 문학, 사회과학, 예술 순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도 문학이 24%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문학류는 전통적인 도서관 분류 방식으로는 주제적 탐색이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문학류를 서비스하는 기존의 방식은 대체로 베스트셀러, 신간, 유명 작가의 저작 등 비주제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반해 테마 컬렉션을 구성하는 문학류는 대체로 주제 분석의 결과에 따라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테마 컬렉션은 문학류에 대한 주제적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유용한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테마 컬렉션은 대안적인 분류 체계로서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응답자의 10.1%는 자신이 이용하는 자료의 주제 분야를 모르거나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도서관 분류 체계가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친화적이지 않거나, 분류 체계가 이용자의 자료 이용에 필수적인 장치로 인식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원의 탐색 방식 중 특정한 자료를 검색하는 것에 비해 브라우징의 비율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새로운 분야의 독서 증가', '우연한 정보의 발견', '컬렉션 추천책이 있음'과 같은 테마 컬렉션에 대한 효과 인식도가 높았다. 테마 컬렉션 서비스는 기존의 도서관 분류와 같은 학문적 관점이 아닌, 이용자들에게 익숙하고 직관적인 범주화의 방식으로 하나의 테마에 해당하는 정보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도

서관 주도로 사전에 설계된 일종의 브라우징 체계로서의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테마 컬렉션의 범주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유지, 보완되어 나간다면 테마 컬렉션이 향후 일종의 이용자 친화적인 분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도서관 및 사서에 대한 인식의 측면이다. 테마 컬렉션의 구축과 운영은 도서관 및 사서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앞선 분석의 결과, 테마 컬렉션을 인지하고 이용하는 응답자들은 사서들이 '질문을 잘 파악'하고 '자료를 빠르게 안내'한다는 것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였다. 또한 '도서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도서관이 더 가깝게 느껴짐'이라는 것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였다.

사서가 이용자의 질문을 잘 파악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빠르게 안내하는 것은 그만큼 사서가 도서관 장서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서의 장서에 대한 자신감이 바탕이 되었을 때 이용자들은 사서를 신뢰하고 도서관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테마 컬렉션 구축을 통한 사서들의 자기 효능감과 만족감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충분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시간과 이를 위한 업무 환경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테마 컬렉션 서비스의 효과를 이용자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

에 따라 수행되었다. 이에 이용자 설문을 통하여 테마 컬렉션 효과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테마 컬렉션의 효과가 도서관의 다양한 업무와 갖는 관련성과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확산되고 있는 테마 컬렉션 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테마 컬렉션의 효과가 기존의 다양한 도서관 업무 수행과 연계되어 도서관 서비스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도서관은 테마 컬렉션이라는 단일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노력 뿐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모든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에서 비롯될 수 있는 다양한 도서관 활동을 이용자 참여 혹은 주도의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장서 전체의 연계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과 만족도를 높일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도서관은 테마 컬렉션 구축에 필수적인 이용자의 관심사 파악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자와 소통하고,

사회적 이슈 파악을 위해 연구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수행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 개선과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이끌어냄으로써, 이용자로부터 도서관 서비스 및 활동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과 협력적인 반응을 유도해 낼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은 도서관과 사서의 위상과 가치를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단일 도서관을 대상으로 수행된 탐색적 사례연구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공공도서관에서의 테마 컬렉션 서비스 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확인하며 운영의 체계성을 갖추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향후 도서관의 규모나 역할과 같은 도서관의 특성에 따른 비교 분석과 충분한 표본 수의 확보로 다양한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세심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미혜. 1996. 대학도서관의 전시에 대한 효과 분석: 이용자와 사서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2): 107-125.
- [2] 김영석, 박연식, 이용주. 2018. 『북 큐레이션, 책으로 말을 걸다』. 경기도도서관총서 21. 수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 [3] 박영숙. 2014. 『이용자를 왕처럼 모시진 않겠습니다』. 서울: 일마.
- [4] 백지원. 2018. 공공도서관 테마 컬렉션의 기능과 특성: 이용자 중심 분류의 관점에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4): 51-69.

- [5] 정유라, 이지연. 2017. 공공도서관의 테마전시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 및 이용행태 변화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4(2): 27-45.
- [6] 표순희, 백지원. 2019. 북큐레이션을 통한 테마 컬렉션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연구: 공공도서관 담당자의 심층면담을 통해.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4): 189-211.
- [7] 하바 요시타카. 2016. 『책 따위 안 읽어도 좋지만: 세계적 북 디렉터의 책과 서가 이야기』. 서울: 더난.
- [8] Braun, Jolie. 2017. "Now on display: Lessons learned from building a small exhibits program." *Archival Issues*, 38(2): 6-19.
- [9] Camacho, Leticia, Spackman, Andy and Cluff, David. 2014. "Face out: the effect of book displays on collection usage." *Journal of Business & Finance Librarianship*, 19: 114-124.
- [10] Caswell, Lucy S. 1985. "Building a strategy for academic library exhibit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News*, 46(4): 165-168.
- [11] Fouracre, Dorothy. 2015. "Making an exhibition of ourselves? Academic libraries and exhibitions today."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1: 377-385.
- [12] Kemp, Jane. 1985. "Creating exhibits in the smaller academic library."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News*, 46(7): 344-346.
- [13] Ranasinghe, W. M. Tharanga Dilruk, Chung, Jun Min. 2019. "Understanding the curation service in libraries: Is it a revolution or an evolution of reference servi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2): 215-235.
- [14] Tingle, Natalia and Tovstiadi, Esta. 2016. "The impact of physical book displays on business e-book use." *Journal of Business & Finance Librarianship*, 21(1): 26-37.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ang, Mia-Hye. 1996.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Exhibits in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2): 107-125.
- [2] Kim, Young Suk, Park, Yeon Sik and Lee, Yung Ju. 2018. *Book curation: talk with the books. Gyeonggi-do Library Series 21*. Suwon: Gyeonggi-do Cyber Library.
- [3] Park, Young Sook. 2014. *I Will Not Serve Customer like A King*. Seoul: Ilma.
- [4] Beak, Ji-Won. 2018.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Library Theme Collection: Focusing on the User-centered Classification Perspectiv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4): 51-69.
- [5] Chung, Yoo Ra and Lee, Jee Yeon. 2017. "A Study on Public Library Users' Perceptions and Behavior Changes after Using the Theme Display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4(2): 27-45.
- [6] Pyo, Soon Hee and Beak, Ji-Won. 2019. "A study o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me collections through book curation: in-depth interview with public libraria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3(4): 189-211.
- [7] Haba Oshitaka. 2016. *I Do Not Mind Reading Books*. Seoul: Deonan.

